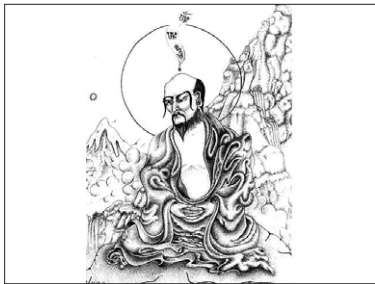


재소자들이 그린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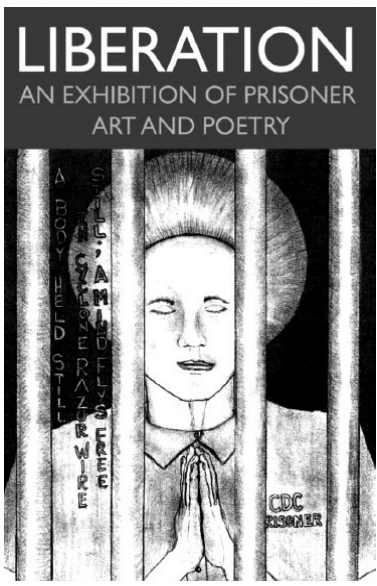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인상 깊은 명장면이 나온다. 교도소 운동장 위로 울려 퍼지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재소자들은 낮설어하면서도 잔잔한 평화를 느낀다. 하지만 이내 음악은 교도관에 의해 중단되고 무단으로 아리아를 든 주인공은 한 달간 독방신세를 면치 못한다. 인간 이기에 지니는 본능적 감성, 이를 인정치 않고 교화대상이라는 일률적 잣대로만 수감자를 대하는 교도소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억눌렀던 재소자들의 예술적 감성이 스님들에 의해 깨어났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외곽에 위치한 힐즈빌 기법관에서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교도소 수감자들의 창작품이 전시되는 것. 독일, 미국,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재소자들이 그린 불교 그림, 만화 등 작품 70개가 '힐즈빌의 해방(Liberation at Healesville)'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이 전시는 대승불교보존재단인 FPMT(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가 운영하는 단체 중 하나인 '교도소 해방운동 프로젝트(Liberation Prison Project, 이하 LPP)'에서 주최한 행사다. FPMT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속해 있는 겐록과 불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단체다. LPP라는 이름 또한 FPMT를 이끌고 있는 조파 라마가 지었다. LPP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1996년 호주에서 로비나 쿨틴(Ven. Robina Courtin) 스님이 갱스터였던 미국인 재소자의 편지에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간성을 깨닫기 위해 시작된 '교도소 해방 프로젝트'는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작품은 수감자들이 그린 부처그림과 직접 조각한 정석품(좌), 이 같은 작품 70점이 호주에서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시된다. 오른쪽 사진은 전시회 포스터.



재소자들이 그린 부처님 그림 전시회 호주서 열려

수감자들의 교화 돕는 불교단체 LPP(교도소 해방 프로젝트)

지구촌 자비 위해 세계 유명 사진작가들 작품 기부

답장을 보내면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는 현재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몽골,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매달 850명 가량의 수감자들이 이곳으로 편지를 보내오고 1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스님들이 그 편지에 답장해주고 있다. 수감된 재소자는 대부분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갱 관련 폭력 문제에 개입돼 있다. 개중에는 사형선고를 받은 이도 있다. 스님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들을 직접 만나 러 가는 등 자비의 마음으로 재소자

들을 돕고 있다.

LPP가 작년에 교도소에 보낸 불교관련 서적은 1만 2천권. 광범한 수감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 여 명에게 불경을 전달한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州)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크리스 헬스타우스키 씨는 "LPP 덕분에 언제든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으면 신선한 꽃을 골라 부처님께 헌화 공양을 한다"고 얘기했다. 미국 앨라배마 마린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제임스 데이비 또한 "스님들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LPP에 고마워했다.

하지만 로비나 스님은 재소자를 불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교도소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 감정은 거부당하고 교육당하기 일쑤죠. 소용은 상상을 넘습시다. 재소자들은 이런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건 그들에게 인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LPP는 거친 환경에 노출돼 감정을 삭막해지기 쉬운 재소자들의 마음 수양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의 손에 종이와 펜, 편지봉투를 들려주었다. 재소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밖에서는 흔한 물건이지만 교도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연필은 자해의 우려 때문에 제한 당한다. 그래서 골잘 재소자들은 편지 봉투를 캔버스 삼아 작품을 그리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는 그렇게 탄생한 봉투 예술 작품 20점도 함께 선보인다. 수감자들이 직접 쓴 30편도 엄선해 전문 성우들의 목소리로 음반에 담았다. 곧 발매될 음반의 제목은 '30명의 목소리(30 Voices)'다.

이번 행사에는 영화 상영과 명상 지도와 함께 7월 6일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기념한 축하행사도 마련됐다.

앞서 LPP는 우리 안의 자비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자비의 필요를 그리다(Portraying the need for Compassion)'란 제목으로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전시회를 연 것. 세계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꼽히는 세바스티앙 살가도(Sebastiao Salgado)를 비롯, 포토 저널리스트 18명의 대표작이 전시됐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찍은 18점의 작품은 LPP의 취지에 동조한 사진작가들의 기증작으로 채워졌다.

예술과 종교는 사람들의 감정적 정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기 마련이다. LPP는 삶과 마음을 정돈하고 싶지만 그 기회를 제약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예술'적 방편으로 잔잔히 불법을 전한다.

배현진 수습기자



소림사 스님들이 미국 거리에서 쿵푸를 시연하고 있다.

중 소림사, 美서 불교무술 선보여

10월 8~14일 LA에서 제1회 북미소림문화축제가 개최

중국 인재종의 대표 사찰이자 쿵푸의 태두 소림사(Shaolin Temple)가 벽안의 미국인들에게 불교의 수장과 무술의 진수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했다.

중국 국영방송 신화사(Xinhua News Agency)는 6월 20일 소림사 방문 스승인 스님(허난성 불교도협회 대표)의 말을 인용, "허난성 텅펑시 송산에 있는 대가람 소림사가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번째 북미소림문화축제(North American Shaolin Cultural Festival)를 개최한다"고 보도하고, "소림사는 지난 9년간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소림사의 날(Shaolin Temple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제1회 북미소림문화축제의 성과 역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해 북미지역만 1만여 명의 쿵푸 애호가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제한 스승인 스님은 "이번 문화축제는 소림의 스님들과 벽안의 쿵푸 애호가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수행의 대중화를 꾀하는 자리"라며 "지난 20여 년간 세계 60여 곳을 방문해, 불교수행과 불교무술을 정수를 선보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림사는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무술음악축제(International Martial Music Festival)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스승인 스님은 "러시아에서는 '소림사 무술승들(Shaolin fighting monks)'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연무대가 마련되는 붉은 광장에 모인 모스크바 시민들이 소림사 스님들의 쿵푸공연을 보면서 보일 반응이 한껏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970년대 홍콩 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소림사 쿵푸는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승인 스님은 "소림사는 수행에 철저하며 쿵푸에 능숙한 스님을 양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으며, 이는 1,500여년의 소림사의 전통을 지키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데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함께 소림사는 교육 과정을 밟은 젊은 스님들이 해외로 진출해 건문을 넓히고, 부처님의 참 뜻을 선양하길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림사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300여 곳에서 찾아와 입문한 스님들이 불법과 쿵푸를 배우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 지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40여 개의 소림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림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림의 쿵푸를 선보이기 위해 북경에 본사를 둔 3D영화 제작사와 협약을 맺고 1982년 세계의 이목을 잡았던 블록버스터 <소림사>의 리메이크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승인 스님은 "서양에서 불교인구가 늘어나길 희망한다"며 "소림의 무술은 영혼의 정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힐링(healing)에 주목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게 호감을 줄 것이며, 이는 불교와 서양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부 안후이(Anhui) 지방에서 태어난 스승인 스님은 1999년 소림사 주지를 맡았다. 이후 소림의 무술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쿵푸 순회공연', '쿵푸 온라인 경매' 등의 방법이 '상업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쟁에 휩싸였다. 그러나 최근 소림사의 세계화에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CEO 스님'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빨리어로 된 미얀마 石經, 세계유산 등재

현존하는 최대 상좌부경전 1868년 729개 돌에 새겨

미얀마 만달레이의 미하 로카마라자인(Maha Lawkamarazain)가 지난 6월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아이라웨디(www.irrawaddy.org) 지가 보도했다.

'쿠토도(Kuthodaw) 석비'라고도 불리는 미하 로카마라자인은 현존하는 '가장 큰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의 고고학부에 따르면, 미하 로카마라자인은 민돈(Mindon,

1853-1878 재임) 왕 통치시대에 상좌부 빨리어 경전 전체를 결집한 후, 1868년 729개의 돌에 새겨 조성해 만달레이 언덕에 세워진 쿠토도 탑 주변에 봉안한 석판 경전(이하 석경)이다.

세계기록유산 위원회 교 유원 사무총장은 "석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내·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미얀마 불교계·학계·정계 관계자들에 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미하 로카마라자인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미얀마 관광사업에 힘을 더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라웨디는 "미얀마 정부는 '미하 로카마라자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3년간 세계기록유산 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미하 로카마라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했고, 이번 등재는 그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세계기록유산 심사기준은 우선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물의 세계적 중요성, 국제·국가·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기록물이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세계적 중요성'이 중



미얀마 만달레이의 미하 로카마라자인(Maha Lawkamarazain). 1868년 729개의 돌에 새긴 이 석경은 현재 쿠토도 탑 주변에 봉안되어 있다.

요하다. 해당 기록물의 소멸·약화 권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어 가 인류 유산을 빈곤하게 만드는 데 불가한 유산으로서, 특정 문화

오종욱 편집위원

손기원 박사와 신명나는

여름 청소년 지혜인 캠프

집중력

집중력 High5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목표의식+명상+만점 자세)
+인성+자기주도학습+자신감+힐링캠프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21기 : 7.20~7.24 / 22기 : 7.29~8.2 (5일 과정)
단체복, 수료증 (특목고 / 입학사정관제 활용)

☎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가정방문 상담 기도해 드립니다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송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상담환영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소원양초 주문환영)

전부경 수백탐지특강

풍수지리 정태철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상담환영

대불정능염신주 인터넷·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 점심식사 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이 함께 후원하실 분

쌀, 라면 보시지는 가정기도해 드립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20분 새에 잠보다 2~3배 깊은 휴식으로
피로 스트레스 신속해소,
원기회복하는 자가치유 비법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 효과 입증

고혈압·심장병·우울증·불면·대시중후군 해소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대인관계 개선 / 당뇨 비만 개선 / 두뇌개발, 창의력, 학습력 증진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 암사망률 감소 /
창조경영 / 마음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완성(깨달음)

'저는 하루 두번 20분씩 TM이라는 보약을 복용합니다.'
- 오프라 윈프리,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영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병원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관련서적 증정)

문의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우수 기업을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탈종공고

• 사찰명 : 연등사
• 법명 : 도심 (안수남)
• 승적번호 : 07-0121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9-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법인연대 통합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